

無人工場 時代가 열린다

金星通信 無人倉庫 개발...FA가 目前에

세상은 지금 自動化로 간단없이 치닫고 있다. 事務自動化로 잘 알려진 OA(office automation), 工場自動化라 일컫는 FA(factory automation), 다스 생소하기는 해도 家庭自動化라 할 수 있는 HA(home automation)가 이른바 자동화의 트로이카인데 이 가운데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역시 FA. 이러한 마당에 金星通信이 安養공장에 無人自動倉庫를 실현, FA에 성큼 다가서면서 自動事業을 본격적인 영업종목으로 들고 나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FA의 最尖端을 자부하는 日本에서도 손을 못대고 있는 완벽한 自體技術로 갖추고 작년 6월 오픈한 全自動倉庫를 찾아 自動化的 물결을 가는 한다.

“칠커덕 치익—” 2백여개의 냉장고 만한 스테이크크레인이 오밀조밀 짜여진 선반들 사이로 레일을 타고 들어간다.

어림잡아 3초 남짓 들어가더니 불쑥 멈춰서선, 팔이라도 내뻗는 양포크가나와 선반에 놓여있던 부품 상자밑으로 들어가더니만 상자를 사뿐히 들어올려 제품으로 당겨 안는다.

空壓장치에서 바람빠지는 예의 “치익”소리가 한차례 더 나더니 뒷걸음질쳐서 제자리로 돌아온 스테이크크레인이 뱅뱅 맴돌고 있던 콘베이어벨트에 안고 온 상자를 내려 놓는다.

그러자 상자는 흐르는 시냇물예



〈無人 自動倉庫와 電話機조립라인〉

낙엽타고 떠가던 童話 속의 개미처럼 유유히 흘러흘러 이 모퉁이 저 모퉁이 몇 차례 돌다 우뚝 멈춰서는데 그곳이 바로 목적지인 組立라인.

한 여사원이 쳐다보지도 않고 뒷손길로 상자속에 손을 넣어 부품하나를 들어다 제앞에 놓고 이리저리 손을 바빠 놀린다.

그 사이 다른 한쪽에선 入庫될 부품이 이와 똑같은 절차의 逆順으로 들어와 창고 선반에 차곡 차곡 쌓인다. 직접 만든 부품과 外注로 들어 온 부품이 날날이 제 갈길을 찾아 창고에 들어가 앉았다가 부름을 받으면 즉시 지시된 위치로 나가 組立工의 손길앞에 대기하는 것이다.

여기에 投入된 인원은 불과 세명. 한명은 中央統制室에서 컴퓨터를 操作하는 오퍼레이터고 나머지 둘은 콘베이어 길목에서 들어오고 나

가는 부품을 확인해 컴퓨터에 入力시켜 주는 터미널 오퍼레이터.

여섯 줄의 스테이크크레인이 12列 10段56聯 총 6천6백개로 뻗뻗이 들어찬 칸칸에서 빈번히 상자를 집어 넣고 빼는디 맞부딪는 일이 없고 엉뚱한 것을 얼토당토 않은 곳에 내려놓는 법이 없다.

金星通信은 이같은 無人自動倉庫를 완성 그동안 성공적으로 運轉함으로써 완벽한 FA를 目前에 두게 됐다.

이미 83년 초 프리플로우 콘베이어시스템에 의한 조립라인 自動화가 끝났고, 이에 앞서 전화가 몸통을 찍어내는 플라스틱 射出成形機가 완전자동화 됐으므로 이제 남은 것은 조립라인에 사람대신 로보트를 집어 넣는 일뿐이다.

金星通信 安養공장에서 國內最初의 완벽한 공장자동화가 시현될 날도 멀지 않음을 본다. 完